



박소현의 섹.시.토크

저녁을 먹다 또 말다툼이 일어나고 말았다. 늘 그렇듯이 싸움의 발단은 별것이 아니었다.

방 저 방을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다. 베란다에 나가 화분을 옮기기도 하고 TV 앞에 앉아서도 한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못하고 리모컨을 계속 눌러대기 일쑤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여자없이 J에게 관계를 요구했다. 싸움의 잔여풍이 아직 가시지 않아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J로서는 당연히 싫을 수



밖에 없었다. "아직 기분 안 풀려서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더 해야지. 그래야 완전히 풀리는 거야."

처음에는 이 말을 그대로 믿었다. 섹스를 하자는 것이 화해의 제스처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결혼생활 3년이 지나면서 J는 깨닫게 되었다.

남편이 싸운 뒤에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은 화해를 하고 싶어서라기 보다는 순전히 몸속에 충만한 전이를 어떻게든 불사르고 싶어서라는 것을 말이다.

한마디로 남편은 좀 전의 싸움 때문에 기운이 넘쳐 있었던 것이다. 싸울 때 마다 레벨 업 되는 만화영화의 전사들처럼 남편은 J와 싸우면서 자

피 터지게 싸워놓고 관계 요구하는 남편 화해? 성욕? 이럴땐 응해야 하나

기 안의 남성성을 키우는 모양이었다. 가끔은 서로 물건까지 집어던지며 격렬하게 싸운 뒤에도 남편은 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말도 하기 싫고 시선도 맞추지 않는데 섹스를 하자니 J로서는 기가 막히다 못해 돌아가실 지경이었다.

남편은 좋게 말하면 뒤끝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남자의 넘치는 에너지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나면 다음날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람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화해의 시도라 생각해 싫어도 관계에 응했던 J였지만 이제는 콧방귀나 뀌 뿐이다. 그럼때면 남편이 인간이 아니라 동물로 느껴지기도 했다. 사람은 누구나 동물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남편은 자신의 본성을 더욱 더 동물적으로 개발시켜 나가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자기가 안 해주면 나 지금 나가서 바람 피울 거야. 그래도 돼?"

"맘대로 해. 대신 오늘부터 우리 결혼생활은 끝이니까 그렇게 알아 뉘."

벌떡 일어나 기세등등하게 안방을 나선 남편은 그러나 차마 현관문을 열고 나가지는 못하고 작은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갔다. 하는 것이 아무래도 야동이라도 보려는 모양이다.

열린 문 너머로,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J의 기분은 서글프다 못해 참담하다.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누르지 못한 본능을 가진 남편도 꽤나 서글프겠다 싶다. 평소에는 더없이 고마운 남편의 에너지가 이런 날은 더없이 밍고 안팎고 서글프기까지 하니까... J는 생각한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원래 이런 것일까?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지난 6월 한 달 네티즌의 밥집을 뺏으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유로 2008이 스페인의 우승으로 대란원의 막을 내렸다.

네티즌은 식지 않은 축구 열기를 바탕으로 유로 2008 결승전을 이변 주 인기 검색어에 올려놓았다. 유럽발 축구 열풍이 찾아들자 이번에는 남미 축구 바람이 네티즌을 들뜨게 했다.

지난 2일 브라질의 축구스타 호나우지뉴(28·바르셀로나)가 4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다. 한 스포츠 브랜드 오픈 홍보차 한국에 온 호나우지뉴는

유로 2008 지고 호나우지뉴·강호동 뜨고

한강 둔지에서 열린 풋살 경기 등에 참여하면서 네티즌의 인기를 끌었다.

괴력의 사나이 MC 강호동의 이름도 인기 검색어 자리를 차지했다. 자신이 출연하는 한 프로그램에서 열기 넘치는 해병대를 상대로 씨름경기에서 완승을 하며 네티즌의 찬사를 받았던 전 천하장사 강호동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네티즌은 '강호동의 동영상'도 함께 인기 검색어에 올려놓았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도 인기 검색어로 급부상했

다. 지난 1일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를 성폭행한 성범죄자들의 얼굴과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네티즌의 이목을 끌었다.

네티즌은 아동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만큼 성범죄자신상공개에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청소년의 학부모나 학교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제한됐고 열람 장소도 경찰서로 한정돼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관련기자 wool@kwangju.co.kr



4년만에 한국을 찾아 네티즌의 관심을 끈 브라질 축구스타 호나우지뉴.

Advertisement for 'The 17th Light Day' (제17회 光日) featuring a Go board diagram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Handmade' (손바람 내는 허 5단) featuring a Go board diagram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Bakji' (박지는 지지옥션배 3연승) featuring promotional text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Living Senses' (리빙 센스) with sub-sections for eye exercises and eye health tips.

Advertisement for 'Ba Dook So Sik' (바독소식) featuring a zodiac horoscope for the Rabbit sign (卯).

Advertisement for 'Derma Plast' (더마플라스트) featuring a photo of a family and promotional text.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Are you coming?' (Are you coming? 당신 가실래요?) with Korean, English, and Japanese text.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What are you looking at?' (何見てるんだい? 뭘 보고있는거야?) with Korean, English, and Japanese text.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What do you like?' (你喜欢什么? 넌 뭘 좋아하니?) with Korean, English, and Japanese text.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Human Affairs' (盡人事待天命) with Korean, English, and Japanese text.